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社會事業의 理念

A Thought on the Ideology of Social Work in Modern Society

咸 鍾 漢

尚志大學 教授

李 垓 炯

尚志大學 講師

目 次

- I. 序 論
- II. 個人的 次元에서 의 現代社會事業의 理念
- III. 家族的 次元에서 의 現代社會事業의 理念
- IV. 社會的 次元에서 의 現代社會事業의 理念
- V. 國家的 次元에서 의 現代社會事業의 理念
- VI. 結 論
- 參 考 文 獻

I. 序 論

社會事業의 理念 (Ideology or Philosophy) 이 무엇이나 하는 물

에, 理念이라는 것이 広義에 있어서 한 個人의 理想이나 信念의 모두
 를 受容하는 故로¹⁾ 社会事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對한 것은 特殊
 한 環境아래서 個別的인 觀點이나 視角에 基因한다는 것이고, 다른 理
 由은 社会事業 自体가 英國 教會의 素朴한 貧民 救濟事業에서 出發된
 以來 그 개념이 多様하고 複雜한 學問的 發達과 함께 外的 內的으로
 擴張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個個人이
 나 또는 集團속에 개인적으로 滿足과 自立을 얻도록 돕는 科學的인
 人間관계의 知識技術에 바탕을 둔 시어비스”²⁾라든가 “個人이나 集團
 이 그들의 특별한 소원과 能力에 따라서 地域社会 사람들과 調和된
 狀態에서 만족한 生活關係와 生活水準을 누리도록 돕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하나의 專門職業的인 시어비스”³⁾라고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이 社会가 너무나 複雜하고 一時的(temporary)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社会事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規定 또는
 定義하는데 있어서는 첫째, 社会事業의 活動內容에 따라, 둘째, 社会事
 業의 活動內容의 結果가 社会에 미치는 影響(impacts & implications)
 에 따라, 셋째, 그러한 影響을 企圖하여 이루어진 活動 또는 行動의
 根本假定 내지 前提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即, 社会事業의 哲学 乃至 理念, 目標, 背景, 活動으로
 表徵되는 기능 및 역할, 影響과 寄与(Contribution) 등으로 細分化

註 1) Plamenatz, Joan, Ideology, New York; Macmillan, 1970,
 pp. 27-31

2) Friedlander, W.A.,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Engle-
 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55, p. 5

3) Dunham, A., Community Welfare Organization, (New York; Thomas
 Y. Crowell Co., 1967), p. 5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덧붙여 생각할 것은 背景보다는 좀 더 上位概念 또는 次元인 環境・構造 即 社会事業이 이루어지는 場 (Setting)이 갖는 意味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本稿에서 이렇게 많은 論議를 한번에 다룬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어 우선 現代社会에서 社会事業이 갖는 또는 가져야 할 理念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注意를 要하는 것은 理念 (ideology)이라 할 때, (1) 그것이 實踐的 意味를 必然적으로 지녀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2) 따라서 所謂 무슨「主義」니 하는 式의 論議는 排除코자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 個人이 기대는 準거를 (frame of reference)이나 理想 또는 理念이 꼭 構造主義니, 実存主義니, 人間主義니, 機能主義니 하고 限定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人間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限定되어 있다는 것이다. 即 아직껏 人間은 위에서 提示한 틀에서 더 以上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所謂 超越을 向한 熱望은 이 틀에서의 逸脫을 意味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哲人王 (Philosopher-King)의 기대와 같은 結論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같은 이즘이라도 地域・時代에 따라 상이한 해석 (interpretation)을 해야만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學問의 궁극적 관심은 人間적인 관심이라고 여겨지며 ⁴⁾ 「人間의 삶을 보다 낮게 하기 위하여」 ⁵⁾ 人間 그 自体로부터 出發하여 宇宙라는 外在的 實在로까지 外延되어가는 것이라는 假定에서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社会事業이라는 데에도 適用코자 한다.

註 4) 金瓚東, 現代의 社会学, (서울; 博英社, 1978), p.2

5) Ibid.,

따라서 본래에서의 理想에 관한 論議는 個人的인 次元에서부터 家族的인 次元, 社会的인 次元, 國家的인 次元으로 展開코자 한다. 그것이 이념(ism)이나 主義에 구애되지 않고 人間社會를 이루는 구성 단위별로 보는 것이 準거들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직까지 가장 훌륭히 쓸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 서이다.

Ⅱ. 個人的 次元에서의 現代社會事業의 理想

社會事業의 理想的인 探究를 個人的인 次元에서 한다는 것은 多分히 人間의 類型 또는 模型(Model)과 關係지워진다고 본다. 그 이유는 社會事業이 하나의 意圖的 活動(deliberate activity)이며 그렇기 때문에 一種의 教育的 效果를 갖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表現하자면 社會事業이 現代 社會에서 갖게 되는 個人的인 意味는 價值를 조건지우는 活動(a Value-Conditioned activity)이라는 점이다.

詳言하면 첫째, 社會事業은 人間生涯에서 주어진 삶의 樣式에 對한 選擇(Choice among life alternative)의 機會와 範圍를 넓혀주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그러한 意味있는 삶의 選擇은 多분히 道德·倫理的인 것과 그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어떤 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위에서 만약 葛藤이 發生할 경우-即 個人的 價值體系와 社會事業에서 제공되는 價值體系(Value-System)가 相衝하게 될 때보다 公益性을 띠게 되리라고 생각되는 行動을 위해 行動修正(Behavior Modification)을 하는데 必要的 代案的 價值體系 내지는 說得的 信念(Persuasive beliefs) 또는 理論(Theory)으로서의 理想⁶⁾이

註 6) Plamenatz, op. cit., pp. 72-92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前提가 人間이 어떤 外部的 制度나 裝置 (Mechanism) 에 依해서 全적으로 統制되는 全体主義的인 立場을 表明하는 것도 아니며, 反對로 個人의 欲求에만 專力하여 끝내는 利己主義的인 人間만이 득실거리는 快樂定向的인 社會 (Hedonism-Oriented Society) 를 造成하자는 것도 아니다. 社會事業은 항상 그 歷史속에서 目標을 어디에 두는가에 努力하여 왔으며, 여기서 發現 또는 糾明된 價值體系가 때로는 社會事業의 哲學 또는 理念이라고 불리워져 왔던 것이다.⁷⁾ 따라서 現代社會가 추구하는 여러가지 價值理念을 살펴봄으로써 이 葛藤은 解消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前提아래 個人의 의미있는 삶을 위해 주어질 수 있고 또 살펴볼 수 있는 指標 (Indicator) 나 理念的 內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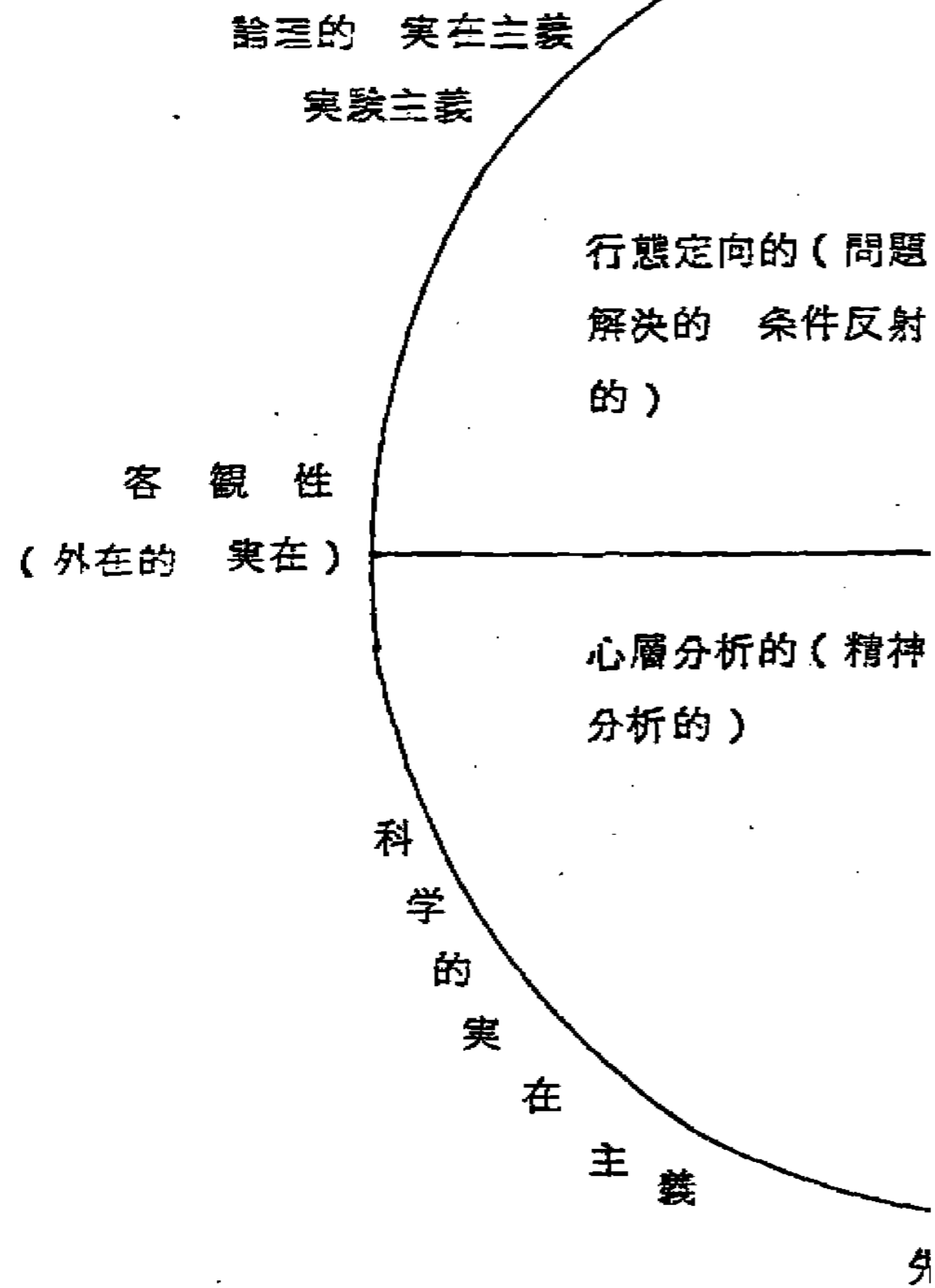
첫째, 生活의 質 (Quality of Life) 問題이다.

生活의 質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⁸⁾ 그 하나는 優越的 (aristic) 인 即 優越感을 提供하는 (excellence-conducive) 要素와 快樂的 (hedonic) 인 即 幸福을 提供하는 (happiness-conducive) 要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前者는 時代와 地域에 따라 社會全體的인 評價基準의 相異性 때문에 論議하기 困難한 점이 있다.⁹⁾

註 7) Konopka, G., Social Group Work; A Helping Process, (New York; Prentice-Hall, 1963), p. 71

8) Rescher, N., Welfare; The Social Issues in Philosophical Perspective (Pittsburgh: Univ. of Pittsburgh, 1972), pp. 61-62

9) Ibid.



따라서 幸福을 느끼게 해 줄만한 要因을 論議하는 일이 더 客觀化하기가 쉬운데 (비록 幸福이 主觀的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一般的 幸福要素, 個別的 幸福要素, 快樂感 등으로 細分¹⁰⁾ 된다.

一般的 幸福要素(Consensus happiness requisites)는 사람들이 一般的으로 設定하고 있는 幸福要素이다. 即 財産狀態, 物的·社会的·政治的 環境의 質, 地位, 尊敬, 職務滿足, 自由, 餘暇의 活用程度가 그것이다.

快樂感(Hedonic Mood)은 앞서 말한 것과는 아주 相異하게 欲求나 希望의 達成에 對한 感情(feeling)의 問題로서 各 個人이 그때 그때의 狀況에서 느끼는 多幸福感(euphoria) 또는 不幸福感(dys-euphoria)과 關係지워지는 一種의 心理的 狀態이다.

이러한 세 가지는 모두 서로 相互聯關的이다. 그러나 問題는 이러한 外面的인 尺度로서 內面的인 問題를 간단히 취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即 삶의 質이라는 것의 價值가 인간이 스스로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充分히 發揮하고 自己完成을 실현하는 條件으로서만 意味가 있다고 본다면,¹¹⁾ 單純한 反應的인 人間(reactive man)으로 조건지움(Conditioning)을 피하기 아주 쉬운 幸福 또는 삶의 質의 向上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즉 이러한 前提가 充分히 滿足되었을 때 이것을 基반으로 自己完成을 피하고 더 나아가 自己超越하여 人類 共榮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자면 결국 사람이 깨지(enlightened) 않고는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다른 문

註 10) Ibid., pp. 62-64

11) 金環東, op. cit., pp. 35-36

제는 이러한 一般的인 幸福의 尺度 또는 기준이 꼭 個別化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즉 人間은 때때로 実存的인 苦痛(existential suffering)도 幸福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¹²⁾ 달리 말하면 人間은 어떤 일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幸福을 느끼는 것이지 幸福 그 자체를 얻으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우리는 단지 救貧의 心격을 떠났던 社會事業의 目標가¹³⁾ 修正되어야 하며 여기에 意圖的 教育의 計劃化가 介入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正義感과 衡平의 問題이다.

일시의 生活의 質은 삶의 價值(Value of life)를 二分했을 때 삶의 機會(The life chances)는¹⁴⁾ 높아지는 삶의 質을 끌고루 누릴 수 있도록 配分構造를 左右해 주는 社會正義의 具現과, 그와같은 配分構造의 決定에 參與하고 選擇할 수 있는 自由의 實現의 前提를 이야기한다. 換言하면 삶의 機會는 삶의 質의 前提인 同時에 質向上의 支柱的 役割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機會의 擴張(expansion)은 必然코 正義感*과 衡平의 問題를 包容한다. 逆으로 正義感의 增大와 衡平의 擴散은 現代社會가 志向해야 할 里程碑를 提示하는 것이다. 이러한 脈絡에서의 社會事業은 福祉社會 또는 正義로운 社會(A Just Society)의 構造化를 志向한 人間意志라고 볼 수 있다

註 12) Rescher, op.cit., p.65

13) 金泳膜, 韓國社會福祉論 (서울: 法文社, 1973), pp.12-13

14) 金瓊東, op.cit., pp.35-36

* Feeling of justice 를 直訳함

Ⅲ. 家族的 次元에서 본 現代社會事業의 理念

우리나라에서 傳統的으로 家族만큼 重要한 意味를 갖는 社會構成單位는 없다. 그러나 家族을 定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家族이 되는 原因은 結婚과 血緣關係에 터를 둔 協同的 生活의 (比較的 永続化 隊列에 參與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家族의 概念은 이러한 分析的 要因 以上の 意味를 가져왔다. 例컨데 어린 자식을 둔 동생이 일찍 죽거나 기타 不幸한 일로 인해 生活能力(아마도 生存能力이 더 正確한 表現일런지 모르지만)이 喪失되었을 때 兄이 그 食口들을 자기 直系家族의 隊列에 包含시키는 것이다. 이와같은 행위나 努力은 뿌리를 잃지 않으려는 執念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樣相은 傳統的인 中國家庭과 韓國家庭에서 힘들이지 않고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代社會는 그 自体는 巨大한 規模로 치달고 있어도 그 内部의 構成分子는 오히려 전보다 더 細密化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家族이라는 것에 맞추어 보면 소위 核家族化라는 現象과 파손된 家族(Broken Family)이라는 두 가지의 主要한 變모양상을 찾아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現代에서는 家族이라는 一次集團보다 其他의 社會組織內의 二次集團이 個人이나 家族에게 보다 重要한 意味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傳統的인 家族의 機能이 他制度나 構成要素로 移轉됨을 뜻한다. 特히 問題가 되고 있는 것으로 老人福祉, 破損家族의 支援, 醫療福祉, 現代社會에서의 疎外·逸脫 防止, 社會教育 等等을 家族은 이미 遂行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른 것이다.¹⁵⁾ 社會事業을 어떻게 規定하든 現代

註-15) 所謂 現代式 고려장 사건이나 이혼율의 급증과 사생아의 증가로 인한 一家倉立制度 등은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들이다.

社會事業에는 이제 본래 家族의 機能에서 派生된 機能을 代身 遂行할 必要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添言할 것은 이러한 機能이 全的으로 社會事業에서만 오로지 遂行할 것은 아니나 바람직한 遂行을 社會事業이 말자면 다른 制度 - 政治・經濟・教育制度 - 로부터의 支援, 이해, 協助가 必要하다고 본다.

IV. 社會的인 次元에서의 現代社會事業의 理念

앞서 말한 두 次元과 重複이 되는 感이 없지 않아 있으나 여기서 社會事業이 社會內에서 機能을 遂行하고 社會內에서 發生하는 問題의 性格과 이러한 問題에 對해 나타나는 反應을 支配하는 態度에 影響을 받는 社會의 產物 (a Product)¹⁶⁾으로 보코 問題의 出發을 삼고자 한다.

現代社會의 社會事業에 對한 要求는 너무나 多樣하고 複雜하며 依存的이나. 그리함에도 不拘하고 社會事業은 過去에는 없었던 非難을 함께 받아야만 하고 있다. 그 理由는 社會의 期待・欲求를 充足하는데 있어 社會事業이 말은 바를 나 해내지 못했다는 데 基因한다.¹⁷⁾

이것은 一種의 逆說的인 狀況이며 (Paradoxical Situation), 社會的인 次元에서는 이에 對한 理由가 糾明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理由의 糾明에 앞서서 살펴보자 하는 것은 社會가 社會事業에 對해 要求하는 것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家族機能의

註 16) Butrym, Z., T., The Nature of social Work,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76, p.105

17) Ibid., p.125

部分的 損担, 個人的 生活의 質向上과 生活의 기회확장 같은 具體的 事項 以外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社會事業의 專門化(Professionalization)이다. 이는 社會事業의 技術적 側面을 強調한 것으로, 過去 社會事業의 性格이 主로 救貧에 있었음에 部分的으로 그 原因이 있다. 卽 現代의 복잡다단한 問題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高度의 技術 또는 專門性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社會事業이 社會問題解決에 있어 問題解決의 分析技術, 相互作用技術, 進行協助技術(Problem-Solving Process Helping Techniques), 計劃과 動作化(Motivating)의 技術뿐만 아니라 Social Disorganization의 發生을 制御하는 予期的 技術(Preventive Anticipation Techniques), 치료적 技術(Remedial Techniques)과 補助的 環境改善技術(Supportive Techniques For Societal Environment Improvement)까지도 要求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專門的인 知識, 技術, 用役의 構造的 開發까지도 要求하는 것이다. 18)

둘째, 社會事業의 広域化이다.¹⁹⁾ 救貧的인 社會事業의 焦點은 個人에 게 主로 편중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現代에 있어서의 社會事業에는 광역화가 要求되고 있다. 여기서의 広域化는 세가지의 意味를 갖는다. 첫째는 地域의 広域化이다. 卽 個人→地域社會(班·統·洞·邑·面→郡·市)→國家社會로 확산되는 것을 意味한다. 둘째는 앞서 「專門化」에서 示唆하는 것으로서 事業對象의 擴大이다. 卽 單純한 求貧에서

註 18) 咸鍾漢, “地域社會開發과 社會事業家の 役割,” 韓國農業教育學會誌 Vol.9, No. 1, 1977, pp.53-54에서 再構成.

19) 現代地方行政制度도 이와같이 広域化되고 있어 社會사업에 좋은 示唆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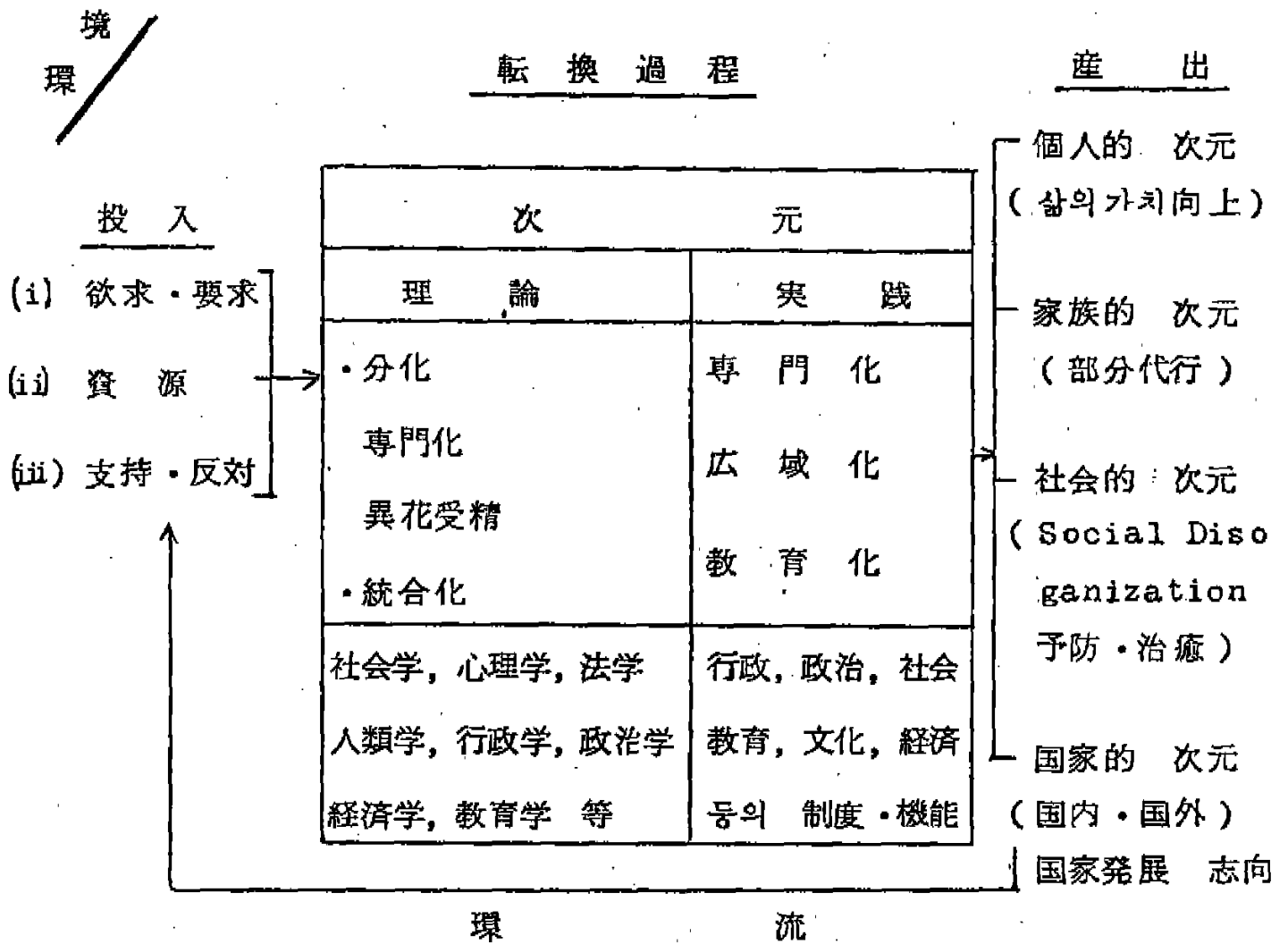
社会問題發生의 守防的 措施까지도 包含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專門性的 提高와 一面 상충하는 것 같으나) 他制度·分野와의 協力の 擴大를 意味한다. 例를 들면 開發計劃, 家族計劃, 保健, 勞動條件向上, 등의 구체적인 Project나 Program과 行政, 經濟, 社会, 教育 등의 分野 와의 協力 等인데 現代의 諸技術이나 學問分野가 혼로 될 수 없는 것은 自明한 論理인 故로 이기시 구체어 說明한 必要는 없다고 본다.

셋째는 教育的 機能 外의 志向이다. 앞서 專門化에서 이야기한 Remedial Assistance, Preventive Anticipation, Supportive Service 와 함께 他分野와의 協力の 結合에서 必然的으로 導出될 수 있는 것 이다.

넷째는 體系化 (Systemization) 이다. 社会體系에 (Social System) 의 한 研究가 精微化·多様化되면서 나오는 期待이다. 이기시 社会事業의 體系化는 앞서 말한 專門化, 広域化, 教育的 志向의 統合化를 志向한 努力의 一環이다. 이드 學問分野 또는 實踐分野이든지 間에 分化와 統合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은 宿命的인 課題라는 點에 비추어 볼 때 別로 異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以上을 요약하이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社会事業의 模型²⁰⁾이라고 불

註 20) 이 경우에 社会事業의 模型은 學者의 觀點에 따라, The Problem-Solving Model, The Psycho-Social Therapy Model, The Functional Model, The "Ministration-in-Love" Model, The Behavior-Modification Model, The Crisis-Intervention Model, The Task-Centered Casework Model, Holistic Model (The Four-System's Model 과 The Unitary-Approach Model) 로 나눌 수 있다. 이기시는 원자 나름대로 시도하였다. 자세한 것은 Butrym, Op.Cit, pp, 15-39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社会事業의 一模型

V. 国家的 次元에서의 現代社会事業의 理念

여기서 国家的 次元이란 두 가지의 意味를 갖는다. 하나는 国内的인 次元이고 다른 하나는 國際的인 次元이다. 国内的인 次元에서의 社会事業은 終來 私設的인 性格에서 国家發展計劃의 한 分野로써 Pu-

blic Service의 主宗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한다. 過去의 國家發展計劃은 주로 經濟發展에 焦點이 주어졌었으며, 國家發展의 段階²¹⁾ 即 國家形成, 國民形成, 經濟發展, 參與, 配分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그리 異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現代社會에서 參與·配分에 보다 큰 重點이 주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重點의 移行은 物質的인 豊요의 社會가 아니라 正義로운 社會, 公正한 社會를 志向함을 뜻한다. 社會事業의 焦點도 마찬가지로 單純한 救貧에서 公正한 社會建設로, 物質的 福祉社會의 志向에서 精神的 福祉社會의 志向으로 移轉되어 감을 뜻한다.

國家社會라는 觀點에서의 社會事業은 앞서 말한 바와같이 私設的 性格에서 公共的 性格으로 擴張·移轉되어감과 同時에 國家發展計劃에의 包容展開가 予想될 수 있다. 前節에서 広域화와 一面 脈絡을 같이하나 前節의 그것은 單純한 國內地域에서의 地域擴張을 意味하는 反面(Nation-wide), 從者의 경우는 國家的인 動員化(National Mobilization)를 意味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國家間의 交流를 통해서 社會事業이 이루어지는 國際的 次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國際的 交流가 必要한 까닭은 (現在 UN의 諸機關이 이러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남쪽의 低開發國과 북쪽의 先進國사이에 가로 놓인 南北問題에서 發生하는 國際的 規模에서의 分配의 不平等化 傾向때문이다. 더 나아가 經濟的인 不平等 뿐만이 아니라 文化·社會構造의 不平等에서도 이러한 問題는 提起된다. 要言하면 人類社會의 福祉實現, 正義實現은 一國家의 努力만으로는 힘든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志向點을 到達하기 위한 全人類的 共同努力의 一環으로 社會事業의 實質的인 國際化가 要求된다고 볼 수 있다.

註 21) 朴東緒, "近代國家의 發展," 朴東緒編, 發展行政論, 法文社, 1973, pp.11-27

VI. 結 論

歴史的으로 볼 때 社会事業은 個人的이고 單的인 또는 小地域的인 救貧事業에서 社会的이고 複合的인 또는 大地域的인 救人事業으로 展開되어 나가고 있다. 여기서 必然코 要求되는 것은 事業의 專門化, 統合化, 教育化 등이다. 그러나 社会福祉는 주로 理念的인 次元에서 社会事業은 주로 實踐的인 次元에서 論議되어 왔으며, 社会事業은 社会福祉의 理念에 따라 實踐하는 것으로 認識되는 것이 社会事業에 대한 가장 厚한 認識 또는 대접이었다. 흔히 社会事業하면 돈이나 폐 있는 사람이 慈善事業하는 程度로나 여김을 받는 것이다. 反面 社会福祉라 하면 形而上學的인 Ideology인 것처럼 여겨오던 것도 事實이다 따라서 大部分의 學者는 兩者를 区分하는 데에만 注力해 왔지 兩者의 統合에는 神經을 別로 쓰지 않아 왔었다. 더 나아가 社会福祉와 社会事業 間에는 階層構造가 設定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 왔다. 그러나 本稿는 社会福祉를 社会事業에 對한 投入과 産出의 關係로 把握하고 社会事業을 轉換過程(Conversion Process)으로 理解하여 現代社会의 要求에 걸맞는 模型을 導出해 냄으로써 現代社会에서의 社会事業의 理念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個人的 次元, 家族的 次元, 社会的 次元, 國家的 次元의 段階別로 論議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社会事業은 바람직한 狀態에 놓여 있지 않으며 社会事業의 正体(Identity)의 糾明에 있어 混沌에 没入되어 있다. 따라서 今後의 課題는 이러한 社会事業의 正体를 定立·糾明하는 일이라 하겠는데 本稿는 그러한 努力의 始作에 不過하다 하겠다.

参 考 文 献

1. Plamenatz, Joan, Ideology, New York; Macmillan, 1970.
2. Friedlander, W.A.,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55)
3. Dunham, A, Community Welfare Organization, (New York; Thomas Y. Crowell Co., 1967)
4. 金璟東, 現代의 社会学, (서울; 博英社, 1978)
5. Konopka, G., Social Group Work; A Helping Process, (New York; Prentice-Hall, 1963)
6. Rescher, N., Welfare ; The Social Issues in Philosophical Perspective (Pittsburgh; Univ. of Pittsburgh, 1972)
7. 金泳謨, 韓國社会福祉論 (서울; 法文社, 1973)
8. Butrym, Z.T., The Nature of Social Work,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76
9. 咸鍾漢, “地域社会開發과 社会事業家の 役割” 韓國農業教育学会誌.
10. 朴東緒, “近代國家의 發展,” 朴東緒編, 發展行政論, 法文社, 1973